

축산업계

소식

부가가치세, 관세 전액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활용

—양축가들 반발 거세—

농림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일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어촌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사용해왔던 부가가치세 2천억원, 관세 3천억원 등 5천억원(89년 4천4백억원)을 농어촌 발전지원자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 인하만이 양축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진흥기금에서 경험했듯이 농어촌발전지원자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축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 인하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으며 일단 정부 방침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농림수산담당 비서관 신설 대통령 직접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10일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어촌 현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비서실에 농림수산 담당 비서관을 신설토록 지시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농어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농림수산 업무는 경제기획 담당비서관이 겸임해왔다.

농어민단체 신고로 식품가공공장 설립 식품수입판매업은 등록제로 강화

보사부는 지난 14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민이나 농수협 등 농어민 단체는 시·도에 신고로만 통조림 제조·가공, 건강보조식품, 청량음료 등 모든 식품가공공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신고제인 식품 수입판매업은 등록제로 변경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 수입식품 보관시설을 갖춘 수입업자만 이 식품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외국식품 수입을 막는다.

지금까지 농어민이나 농어민 단체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식품이나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영업의 범위가 제한되었던 것을 농수산물외 버섯, 죽순 등의 임산물과 축산물의 건조, 염장, 가열 등에 의한 단순 가공도 가능토록 영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부패나 변질이 쉬운 내장(간, 콩팥 등), 뼈, 혈액 등 식육부산물에 대해서도 냉동·냉장 등의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한 자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수산부 장관에 조경식씨 임명 전임 환경처 장관



정부는 지난 19일 개각을 단행, 농림수산부 장관에 조경식 환경처 장관을 임명했다.

신임 조경식 장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와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경력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농림수산부 제2차 관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운항만청장 ○교통부 차관 ○환경처 장관 등을 역임했다.

주식회사 대원 창립총회 육계생산자 128명 출자로 출범



육계계열화사업을 위해 육계생산자가 설립한 주식회사 대원(대표 허경회)이 지난 19일 경기도 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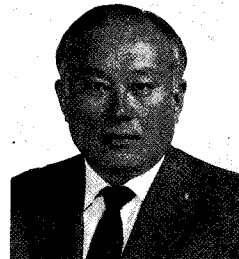
신라예식장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북도 육계생산자 128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대원은 계열주체로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가절감과 육계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출범 초기에는 사료와 병아리 공동구매로 원자재가격을 낮추어 10%이상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도계장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계열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진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 허경회
- 전무이사 : 임영춘
- 감사 : 황일성, 임성대
- 이사 : 구분영, 최종필, 김명호, 박재우, 김복중, 김인기, 안병구
- 주소 : 안성군 공도면 신두리 22-1
- 전화 : (0333)51-0217~8

우보 오세정 교수 회갑기념집 봉정식 10월27일, 호텔소피텔 앰버서더에서



◀ 오세정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오세정 교수 회갑기념 책자 「계(鷄)의 특수관리」 봉정식이 오는 10월27일 개최된다.

오세정 교수는 본회 전신인 한국가금학회 이사과 부회장을 역임하고, 본회 3대 회장을 지낸바 있으며 현재 본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협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장과 충주분교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가금학회장,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장으로 양계업계의 산학협동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번 후학들이 중심이 되어 편집한 「계의 특수관리」는 국내 양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책으로 환경관리, 점등관리, 강제환우, 계분처리와 이용, 부리자르기, 벃자르기 등이 집중 수록되어 있어 양계업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보 오세정 교수 회갑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식)는 학계, 업계, 후학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는 10월27일 12시 호텔소피텔 엠버서더에서 봉정식을 갖는다.

‘90 한국부화협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정식 설립허가 후 처음으로



‘90년도 한국부화협회(회장 박준영) 정기총회가 지난 9월25일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회관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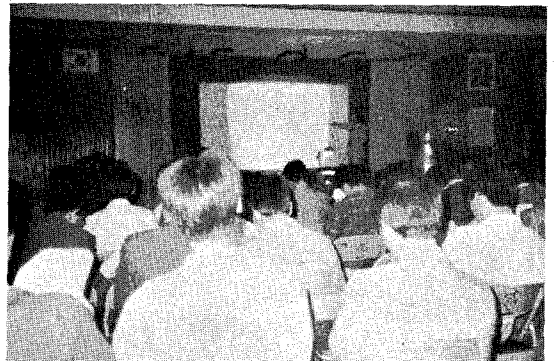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초생추의 조사통계 및 생산조절사업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부화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화협회는 협회로 정식 설립허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부화협회가 밝힌 사업부문별 시행계획을 보면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 확립, ▲정확한 통계조사, ▲종계생산성 저하 대책강구, ▲종계생산 잠재력 및 가격 전망분석, ▲중추농장 실태파악, ▲채란계 자율생산조절 유도, ▲채란분과 위원회 활성화, ▲수입개방대책방안 강구, ▲부화인 조직강화를 지도사업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수급조절 위원회 개최, ▲원종계, 채란, 계육외식업, 유통분과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신홍종 회장, 김진영 의원, 오세정 교수 등이 참석 격려하였다.

「무어분 산란사료 개발 설명회」개최 축산시험장 정선부 박사팀



지난 9월19일 오전10시 축산시험장 대회의실에서는 「어분을 첨가하지 않은 산란사료 개발에 대한 설명회」가 사료공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채란양계인 등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산란사료에 어분을 사용하지 않고 합성아미노산을 이용,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족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분첨가구와 무첨가구의 산란율은 22~42주령에

85.88% : 87%, 42~62주령 79.44% : 81.67%, 62~82주령에는 71.30% : 72.46%로 나타나 산란 전 기간을 통해 어분 무침가사료의 산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난중도 전주령을 통해 60.38g : 61.18g 으로 증가하였으며 산란량도 48.00 : 49.54로 1일 1수당 산란량이 3.2% 증대되었다.

한편, 어분 무침가구에서 산란량이 많아짐에 따라 사료섭취량도 22~42주령 124.76g : 125.87g, 42~62주령, 112.36g : 113.12g, 62~82주령 126.20g : 127.65g 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사료요구율도 2.521에 비해 2.459로 나타나 어분첨가시 보다 2.5% 개선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1kg 생산당 사료비가 369.98원 : 356.65원으로 나타나 13.33원이 절감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산란사료에 있어 전기간 구분없이 단백질 수분이 15%로 고정되어 있으나 산란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각각 15%, 14%, 13%로 낮춰도 생산성 면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유럽 육가공 기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육가공협회 주최

'90유럽육가공 기술 심포지엄이 지난 9월4일 오전 9시부터 한국육가공협회(회장 강진우) 주최, 다다상사 후원으로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도계의 품질관리, 제2부 햄 및 염지가공 기술, 제3부 분쇄육제품의 연속가공 기술, 제4부 식품첨가물과 육제품 생산에서의 그 응용기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도계의 품질관리를 발표한 덴마크의 페렐맨은 도계장에서의 궁극적인 문제는 세균으로 적절한 청소와 도계장 위생관리 방법이 미생물 감염의 원천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축산경제신문 창간

9월24일, 축산 전문지로

축산 전문지 축산경제신문이 지난 9월25일 창간되었다.

축산인의 지혜를 결집하여 축산업이 처해 있는 개방화에 따른 난국을 극복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창간된 축산경제신문은 지난 24일 창간호를 발간하고 창간 기념식을 잠실 롯데쇼핑홀에서 개최하였다. 축산경제신문은 비판, 계도, 전달하는 신문외의 기본적 기능위에서 정부와 양축가의 밀착화를 유도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하며, 특히 개방화시대의 적응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축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문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계장 현대화에 관한 세미나 개최 미국 도계처리 설명

도계장 현대화에 관한 세미나가 가금처리협회와 육계산업발전협의회 주최로 지난 1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도계전문가 Roger Walter씨 강의로 미국의 도계처리에 관해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미국의 도계현대화 과정에 대한 설명과 닭고기 제품시장, 도계처리 및 가공 상황, 도계시설, 도계장 위치선정, 설계, 도계장 경영관리, 제품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미국의 도계장은 단순 도계처리과정을 벗어나 제품가공처리를 갖춘 가공장으로 발전되었고, 생산제품의 특성에 따라 각각 공장이 전문화되어 시장 수요에 맞춘 제품생산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또 도계장 위치선정은 육계사육농가와외의 거리,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고 물, 전력, 연료와 시장 운송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한다고 하였다.

축산장기발전대책 전국 순회 홍보교육

농림수산부 9월20일~27일

농림수산부는 축산장기발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대책의 대양축농가 홍보교육을 오는 9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하였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시도별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 관
서울	수해로		이 수 헌 (국립종축원 중소가축과장)
인천	무기연기		
경기			
강원			이 재 용 (농림수산부 축산기사)
대구	9. 21	대구	백 현 기 (농림수산부 축정과)
경북	9. 19	대전	
대전	9. 19	대전	이 대 호
충남	9. 20	청주	
충북	9. 20	청주	신 구 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제주	9. 22	제주	
부산	9. 25	창원	정 병 학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경남	9. 26	담양	
광주	9. 26	전주	
전남	9. 27	전주	
전북	9. 27	전주	

배설물 처리 및 유해잔류물질 방지교육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 주최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축산배설물 처리 및 유해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대양축농가 순회 교육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설물 처리에 대해 농림수산부와 환경처의 처리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축협 시범사육농장 유재일 과장이 축산분뇨 이용과 처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또 농림수산부의 육류의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에 대한 발표와 가축위생연구소 박종명 연구관이 축산물 안정성 확보, 축협중앙회 서기상 부장이 양축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90 전국수의임상강습회 개최

대한수의사회 서울·대전에서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창국)은 지난 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동물임상에 관해, 8일 충남대학교에서 대동물임상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했다.

소동물분야에서는 미공군 오산병원 조길현 수의관이 “소동물 안과질환에 대하여”, 일본 요구네라 동물병원장이 “개의 내분비성 피부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대동물분야는 가축위생연구소 윤용덕 연구관이 “송아지의 세균성 호흡기 질병”, 안수환 연구관이 “송아지의 바이러스성 소화기 질병”에 관한 발표와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김옥경 과장의 “가축위생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축산단체·학회 간담회 가져

수입개방 대응방안 모색 위해

축산안정 발전 정책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월21일 한국축산분야 학회 협의회(회장 배대식)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산학협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수입개방 및 UR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축산인들은 그간 너무 안일한 자세를 펴왔다고 평가하면서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요인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학회 및 축산단체가 단결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분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작성, 제출키로 하였으며 현재 많은 축산인들을 실망시킨 바 있는 배합사료 영세율적용 무산에 대해 깊

은 우려를 표명 계속 관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배합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타당성도 연구분석하여 자료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공청회 개최

상업농의 급속한 진전과 국제화·개방화란 명분하에 확실한 대안없이 진행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한국농축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각 축산단체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4당이 합일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정기국회로 넘겨지자 전국

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이를 관찰시킨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100만인 서명운동작업에 돌입하였다.

민자당이 8월30일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론을 제기하면서 금기야 9월에 들어서야 농림수산부장관이 부가가치세는 존속시키되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액 돌려서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낸바 있어 전 축산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을 보이고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19일 한국농어민신문사와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공청회가 축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 원 모 집

당사는 한국 양계업의 선두 업체로 금번 사세 확장에 따라 회사와 자기 발전을 함께할 의욕적이며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명

2. 모집분야

구 분	업 무	인 원	응 시 자 격
신입사원	영 업 부	0	• 전공과목 : 자연계열
	생 산 부	0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G.P A/S	0	• 군필자 및 운전면허소지자
	전 산	1	• 전문대학 전산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G.P(Egg grading and Packing Center)

3. 제출 서류

- 1) 자필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 소개서 — 각 1통
이력서 상단에 전화번호 기재
- 2)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 1통
- 3) 주민등록등본 ————— 1통
- 4) 학과장추천서 ————— 1통

4. 제출처(우편 또는 직접) : 585-8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1번지 고창양계 기획실

5. 제출기한 : 1990년 10월 20일

6. 전형방법 : 면접

7. 면접일시 : 1990년 10월 30일

고창양계 본사 회의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양계

본사(0677-62-3541~3)

기획실로 문의 바람.

